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9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이사야 · 요한복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9월 일정표
- 4 기도제목표
- 6 매일묵상 이사야 16장 ~ 이사야 21장
- 18 9월 7일 성경 공부
- 20 매일묵상 이사야 22장 ~ 이사야 27장
- 32 9월 14일 성경 공부
- 34 매일묵상 요한복음 5장 ~ 요한복음 10장
- 46 9월 21일 성경 공부
- 48 매일묵상 요한복음 11장 ~ 요한복음 16장
- 60 9월 28일 성경 공부
- 62 매일묵상 요한복음 17장 ~ 요한복음 18장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9

September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제6차 실천서 교화살집주일 교화살집가을 특별찬양예배	8 추석	9	10 (토)공휴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014년 부흥회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회 주요 일정

9월 7일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주일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9월 17일 ~ 19일

2014년 부흥회

9월, 개인 전도 계획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2014년 부흥회(9월 17일(수)~19일(금), 저녁 7시)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③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⑪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나눔을 올렸을 때의 기쁨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㉑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㉒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㉓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㉔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㉕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㉖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㉗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㉘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㉙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㉚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㉛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㉜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㉝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1~5절)

선지자는 모압더러 예루살렘의 임금에게 어린 양들을 공물로 보내고(1절), 모압의 파난민들(2절)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5절)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좋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6~14절)

모압은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심히 교만했습니다. '십마의 포도나무'란 동쪽으로는 광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사해에 미치는 모압의 포도 산지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이러한 풍부함 속에 있던 모압은 결국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6~7절). 모압이 자랑하던 농작물은 열국에게 짓밟혔고(8절), 그로 인해 수확의 노래와 즐거움은 사라졌으며(9~10절),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와 봉사와 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11~14절). 이처럼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 는 모압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Q.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로 자랑하는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¹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² 그 날에 아람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³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을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을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⁴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⁵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차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러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⁶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러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본문 이사야 17:1~14 찬송가 232장

무너진 무더기(1~11절)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던 다메섹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무너진 무더기'가 되었고(1절), 강성하던 북이스라엘은 쇠하여 그 영광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3~5절). 그러나 그 외중에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2~3개 열리듯,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수라 할지라도 회복을 위해 몇 사람을 남겨 놓으셨습니다(6절).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7~8절). 그런데 이런 회복도 잠시, 이사야는 다시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9~11절).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 낙심하여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느덧 죄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나(12~14절)

열방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거가 바람에 흩날리듯 이 그들은 흩어질 것입니다(12~13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강탈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14절).

Q.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하며 욕할 때,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합니까?

Q. 회복과 범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니까?

시온 산에 이르리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㉑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㉒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꺾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㉓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찢어 버려서 ㉔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㉕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민첩한 사절들아(1~3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연합하여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사 17:12~14 참조). 앗수르에 대해 위협을 느낀 구스는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사신을 보냈지만 이사야는 그런 동맹이 필요 없다고 사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1~2절).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적 힘의 결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4~7절)

하나님께서서는 당시 근동 지역 전체를 휩쓸고 남유다 왕국까지 넘보던 앗수르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때가 되면, 포도나무 가지들 베어 버리듯 앗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며(5~6절), 그 후에 구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7절).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성령께서 그들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Q.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날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이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을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이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박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바닥이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만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만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늙은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버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1~10절)

애굽은 모든 면에서 고대 근동 세계의 중심이요 선두 주자로서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눈은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고 나일 강변의 애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앗수르에게 집락을 당하자 유다는 가장 먼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외쳤습니다(1절). 이와 같이 어려서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지혜로 피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2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11~15절)

애굽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정치가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장하신 뜻'(12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Q.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까?

Q.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만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가 그대로 하여(1~2절)

이사야 선지자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똑똑히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 패하여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포로의 행세)로 행하여 이 일의 예표와 징조가 되라고 명령하셨고(2절),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사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3~6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유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은 대단한 군사력을 지닌 강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은 결코 의지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4~6절). 본문은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를 보여 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Q.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수치를 보인 애굽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겟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¹ “혹독한 목사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² “어려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압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³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백에 기름을 바를 지어다”⁵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⁶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⁷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준여 내가 낮에 들 망대에서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⁸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⁹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새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¹⁰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¹¹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¹² “대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¹³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간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어니라”¹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¹⁵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자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1~10절)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1, 9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쏘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속이는 자'와 '약탈하는 자'는 각각 엘람과 메대를 가리키는데, 이 둘이 연합하여 바벨론을 공격함으로써 바벨론에 억압당하던 나라들의 모든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2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나라가 꿇어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11~17절)

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억눌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아침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빛이 밤아 옴을 나타냅니다. 파수꾼으로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징조로 본 예언자는 '두막'(하, 밤과 죽음의 침묵)를 향해서는 멸망과 좌절의 밤이 곧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11~12절). 이스라엘은 무역과 산업으로 활발한 아라비아의 힘과 부에 기대어 자신들의 안녕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꺾으셨습니다(13~17절).

Q.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9월 7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으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했던 작은 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먼저 여사야 19:16~25을 읽으십시오.

1. '그 날에' 애굽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까?(16~17절)
2. '그 날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18~22절)
3.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까?(23~25절)
4.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전해집니다(고전 1:21).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복음의 통로로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으로 나가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과 앗수르를 잇는 대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세상으로

1. 선교와 이웃 전도를 위한 가계부의 별도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2.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다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양, 헌금, 헌금 기도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돌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말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함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매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훑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양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최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1~4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서 영적 가치와 지형의 특성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1절)로 비유되고는 했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앗수르 군대가 갑자기 물러가자(사 36~37장 참조) 온 예루살렘은 들떠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2절). 그러나 선지자는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유다는 싸워 보지도 못하고, 포위되어 질병과 기아로 죽고(2절), 화살 한 번 제대로 쏘 보지도 못하고 활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며(3절), 지도층의 인사들은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3절). 이와 같이 유다의 국가체제가 붕괴되어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보며 이사야는 통곡했습니다(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대(5~14절)

유다는 그들에게 닥칠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추악하고 세속적인 방종에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쾌락과 부패에 심취해 갔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자행했습니다(12~14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북과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던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고(5절),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촉구하였지만(12절) 그들은 오히려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떠들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13절)라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Q. 지금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Q.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살려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목적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읍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이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나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전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더 확대 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전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가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저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1~14절)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국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으로서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인 두로에 관한 심판이 선언된 말씀입니다. 두로는 항적부터 지중해라는 해상 무역로와 팔레스틴이라는 육상 무역을 이용하여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나라로서 주변 열국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굽에서 생산된 곡물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왔기에 두로는 '열국의 시장' (3절)이라 불렸습니다. 이러한 두로는 영원히 강정할 것 같았지만,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혼드시는 '여호와께서는 그곳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12~14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화려하고 기세등등하던 두로가 이처럼 곧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의 원인이 교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무역한 것이(15~18절)

70년간 모든 이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두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심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두로는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나라를 경영하고 무역하며 부를 쌓아가는 데만 몰두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로 무역상들이 자전을 위해 쌓은 소유는 결국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됩니다(18절).

Q. 오늘 누구를 위해 일하며, 무엇을 위해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Q. 혹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홀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밟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치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악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달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홀으시라니(1~6절)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세상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에게 미치는 심판 때문에 사람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1~3절), 이로 인해 세상은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혼란과 재난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4~6절). 종말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그날에는 땅이 뒤집어엎어지고 주민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7~13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의 즐거움과 기쁨은 모두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 날이 되면 세상은 온통 약탈당하고, 폐허가 되고, 파괴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온통 슬픔과 탄식의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드는 농부처럼 철저히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13절). 우리는 이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Q. 요즘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
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
이라 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
로 ㉒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
리이다 ㉓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며 폭양
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㉔ 다른 땅에 폭양을 제한 같이 주께서 이방인
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㉖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㉗ 사망을 영원히 멸
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
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
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㉘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암이 겨름물 속에서 초개가 밭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밭힘
것인즉 ㉙ 그가 해엄치는 자가 해엄치려고 손을 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
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㉚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
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1~8절)

하나님이 최후 심판으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면 만민을 위한 풍성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6절). 여기서 '이 산'은 하늘의 시온, 즉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구원 잔치의 대상은 '만민'으로서 인종의 구별 없이 온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잔치를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14). 만민을 위한 잔치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9~12절)

모압처럼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애쓰는(10~11절) 사람은 거름더미 속의 지푸라기처럼 짓밟힐 것입니다(10절).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9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친히 씻어 주시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Q.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Q.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¹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² 주께서 삼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³ 너희는 여호와의 영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엷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⁵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도다”⁶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정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니이다”⁷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⁸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⁹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¹⁰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¹¹ “여호와 우리 하나님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¹²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라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이다”¹³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1~7절)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1절)라는 표현에는 주면들을 참으로 지켜주는 것이 담이 아니라 하나님 이사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 성읍에 들어갈 자는 진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2절)로서 은총으로 백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엡 1:4~7). 또한 '십자가 견고한 자'(3절)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요 16:33).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자'(3~4절)가 이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처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무너져가 쉬운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8~15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의를 배우기를 소원했습니다(9절).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주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구원을 멸시합니다(10절).

Q.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Q.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얼마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라 됨이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씩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들 함께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때가 지나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상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본문 이사야 27:1~13 찬송가 325장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1~1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보다 강해 보입니다(1절). 그는 세상의 권세와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애쓰지만 포도원으로 비유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2~3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12~13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악행과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흠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다시 돌아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12절).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베푸시는 날을 가리키는데, 땅 흘러 이론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가 과실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고 모으듯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모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모인 자들이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입니다.

Q.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Q.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9월 14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으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직장인, 사업가, 공무원, 주부, 학생, 교사,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22:15~25을 읽으십시오.

1. 션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15절)
2. 션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16절)
3.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17~19절)
4. 하나님은 션나 대신 누구에게 정권을 맡기셨습니까?(20절)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21~24절)
5. 션나를 대신해서 정권을 맡은 사람의 가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25절)
6.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셉나는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으로 왕궁의 국고를 맡은 궁중의 최고 관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빼돌리고, 자신을 위한 무덤을 호화스럽게 만들었으며, 타고 다니는 수레를 매우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중요한 직임을 맡았지만 세속적 가치로 살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느라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교만하고 신실하지 못한 셉나의 관직을 박탈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셉나가 있던 자리에 할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셉나의 권위를 모두 그에게 이양시키며,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 (22절)를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발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계 3:7). 엘리야김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로부터 모든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 세상으로

1. 모든 권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십니까?
2.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양, 헌금, 헌금 기도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네가 낯고자 하느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㉒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더라^㉓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낯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㉕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㉖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㉗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㉙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㉚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㉛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1~9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대스다 못가에는(2절) 질병과 장애를 고쳐 보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환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3절).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소식에(4절) 사람들은 적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7절). 그러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그를 보시며 '내가 낫고자 하는 내'라고 물으셨습니다(6절). 그리고 자신을 물속으로 옮겨 주기를 바란 병자의 기대와는 달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10~1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공훈은 안식일에도 배풀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Q. 당신에게 있는 영적 질병은 무엇입니까?

Q.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①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②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③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 운지라 ④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⑤이렇게 말씀하심은 전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⑥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반개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⑦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⑧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⑨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⑩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⑪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⑫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⑬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⑭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본문 요한복음 6:1~15 찬송가 198장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1~9절)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1~2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1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5절). 이에 빌립은 음식을 구입할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고(7절), 안드레는 자신이 데려온 어린 아이의 음식을 내밀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8~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조건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10~15절)

이처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11절),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은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12절).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증거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14절 산 18:15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정치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15절).

Q.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를 믿지 아니할아려라(1~9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도시에 나가 성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기적을 행함으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3~4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의 의미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히 가시니라(10~13절)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10절). 그곳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12절). 그들 중에는 비록 유대안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11절).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가족이나 지인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왜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라

①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②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③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④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⑤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⑥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⑦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⑧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⑨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자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⑩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⑪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1~6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3절). 여인의 처리 문제를 따져 묻는 그들의 질문에는 교활한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4~6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 치라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어기게 되고, 돌려 치라 하면 자적으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일이 되므로 로마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7~11절)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과연 율법대로 이 여인을 정죄할 권리가 있는지 되물으셨습니다(7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9절). 사람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고 그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회개시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10~11절).

Q. 죄 지은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Q. 타인을 정죄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무엇입니까?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밥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세상의 빛이로라(1~7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의 신체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어떤 죄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을 다 부정하시고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3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먼저 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며 자신과 동행하면서도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4~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8~12절)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걸인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은 맹인 되었던 자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의 말대로 하니 보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11절).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습니다(12절). 하지만 그들의 암흑과 같은 영적 상태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Q.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Q.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 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살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살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1~6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한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요 9:41).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익숙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자신들의 행태를 보여주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온 것은(7~18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에서 참 목자이신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듯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그들을 경계하며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9월 2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으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같은 나라 말을 하는데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이 있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먼저 요한복음 8:21~30을 읽으십시오.

1.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23~24절)
2.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25~26절 28~29절)
3.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란 어느 때를 말합니까?(28절)
4.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열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동일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난 자' 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으로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또한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생들은 그의 구원의 빛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 세상으로

1. 나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2.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양, 헌금, 헌금 기도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¹¹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¹²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¹³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¹⁴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¹⁵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¹⁶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제사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¹⁷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¹⁸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¹⁹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²⁰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²¹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²²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²³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²⁴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²⁵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²⁶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1~6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6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7~1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떠났던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7~8절).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크에게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워 일으키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더 밝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15절).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9절). 십자가 사건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정확한 은혜의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Q.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의 발을 닦으니(1~3절)

마리아는 자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나드는 식물의 이름이자 그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의 이름으로 그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소중한 금전적인 가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주님께 합당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4~8절)

가롯 유다는 제발리 그 향유의 값을 계산했습니다(5절). 삼백 데나리온은 일당을 받는 노동자의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5절).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돈 조차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6절).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주님의 것을 가로채려 한 유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드림으로 부지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7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존귀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Q.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1~5절)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옴을 아셨던 예수님은 물과 수건을 친히 준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주인의 발을 씻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기보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후에는 알리라(6~14절)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거절했습니다(8절). 이에 예수님은 이 발 씻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세족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했습니다(9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10절). 반면 이 씻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깨끗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11절). 그는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한 가롯 유대였습니다.

Q.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7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불안해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 다시 와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3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5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인 인간에게 전해 주시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6절).

나를 본 자는(8~11절)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경험해야 안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8절).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미 하나님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9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Q.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Q. 최근에 주님과 깊이 교제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밤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라(1~7절)

이 비유는 '연합'과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도, 열매 맺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8~11절)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결합하라는 요구가 따릅니다(9절).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달하며, 그 사랑을 자기에게 결합시켜 그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로 제자는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11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Q.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예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1~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받게 될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1~2절). 이는 환난 속에서도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릇된 강한 확신 속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의를 위해서 받은 이와 같은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마 5:1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5~15절)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7절). 성령이 오셔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9절).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의에 대해, 사탄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10~11절).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13절).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14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Q. 지금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9월 2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으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먼저 요한복음 11:17~30을 읽으십시오.

1.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21~22절)
2. 예수님과 마르다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23절~24절)
3.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밝히고 계십니까?(25~26절)
4.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동안 주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두 자매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예수님은 기대와는 달리 이틀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과 영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역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 세상으로

1.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양 헌금 헌금 기도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1~5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신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인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대비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3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6~10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루신 일도 아버지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좇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도 내 공로로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심에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6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삶의 주권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Q. 예수님의 영광을 좇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Q.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경험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
 시나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곳은 가끔 예
 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
 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
 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자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
 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
 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
 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
 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
 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기야
 바의 장인이라” 가아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본문 요한복음 18:1~14 찬송가 148장

내가 그니라(1~9절)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감람 산으로 가셨습니다(1절). 그런데 그곳으로 무장한 무리들이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께 왔습니다(3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4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5, 8절). 무리들은 예수님의 위엄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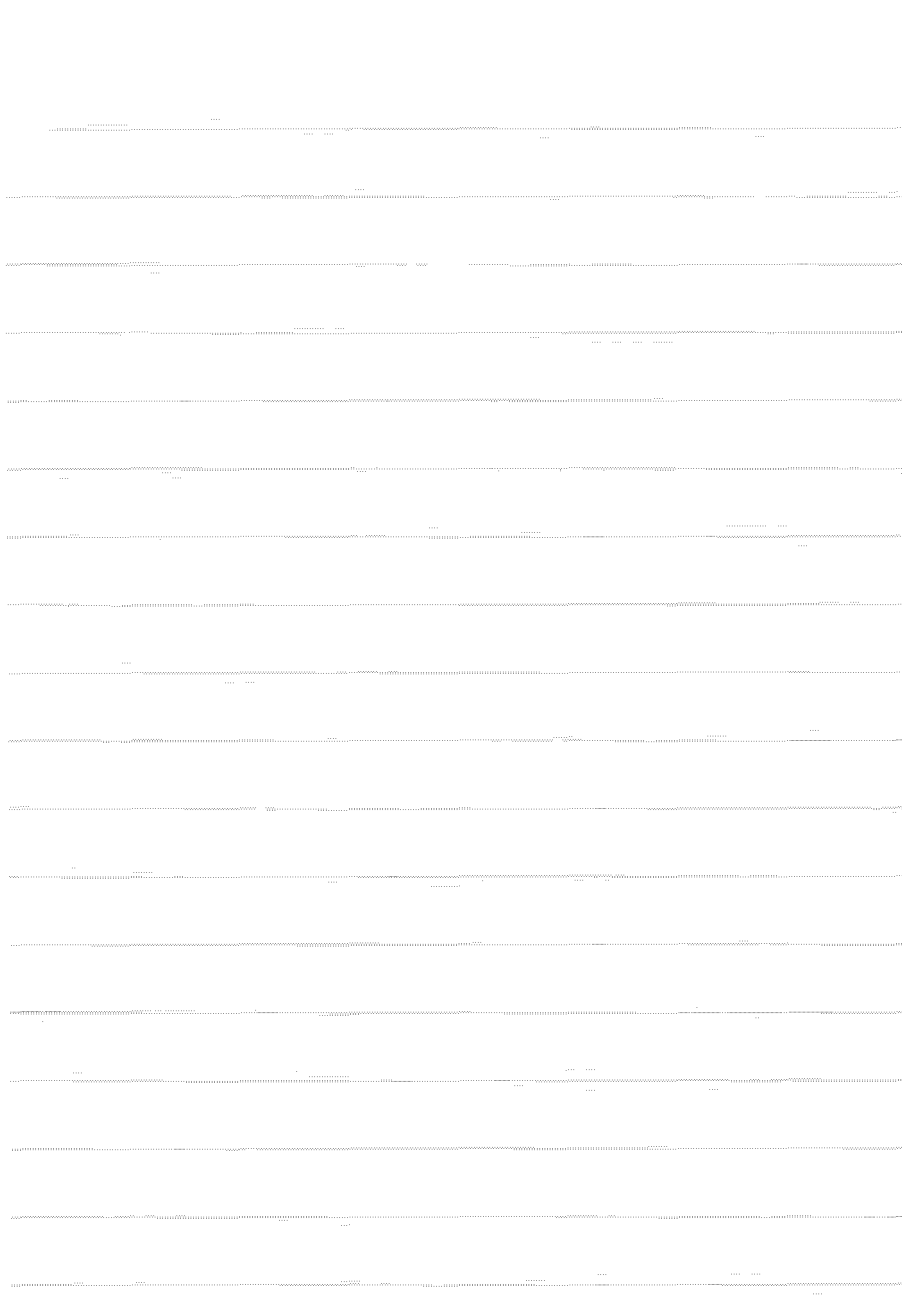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주신 잔(10~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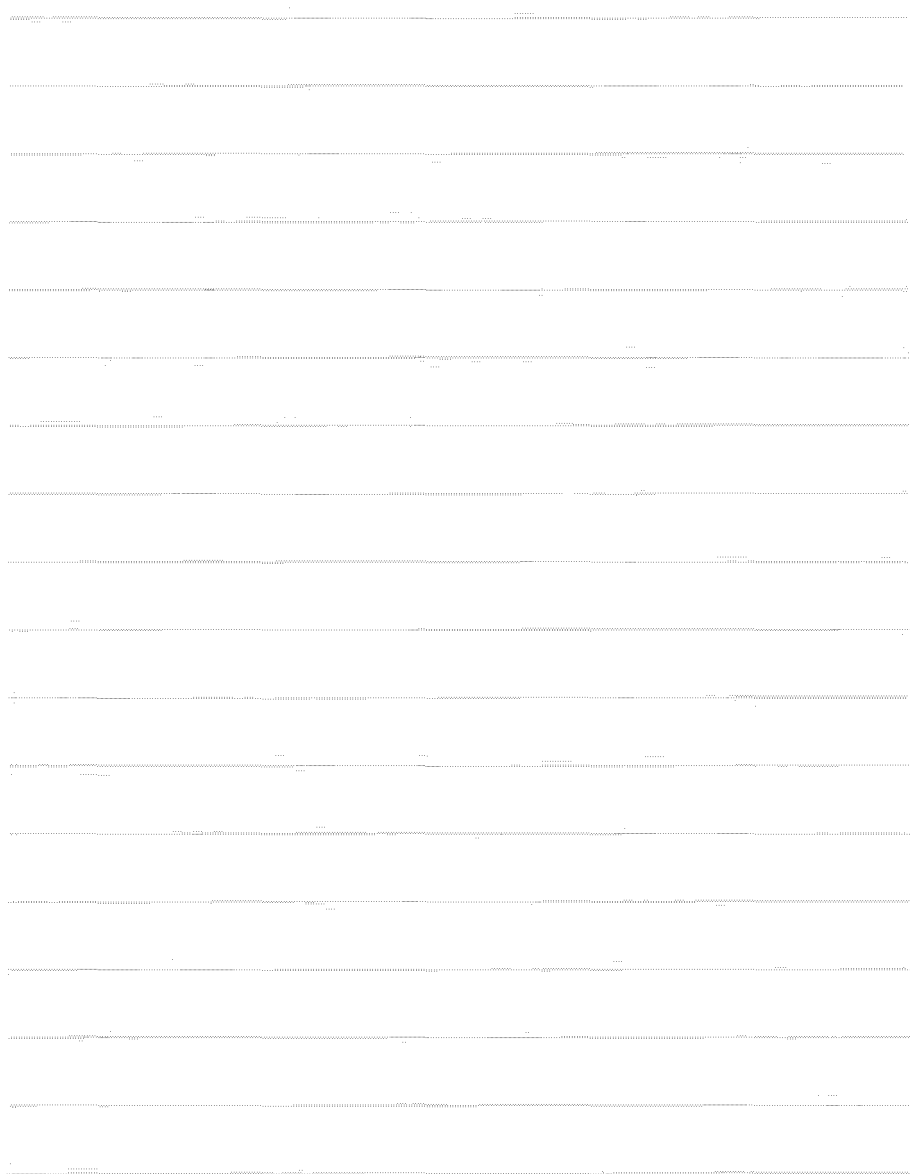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10절). 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1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나스의 법정 앞에 서십니다(12~13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에 서는 수치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11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까?

Q.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9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A · 집필진 | 이원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